

제19호

주 경찰에 극단적인 위험 방지 명령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총기 폭력은 2018년 10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회당, 2019년 4월 캘리포니아 포웨이 시나고그, 2019년 8월 텍사스 엘패소 월마트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총격을 가하는 "대체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 극단주의자와 함께 국내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전술로 남아 있기 **때문에**,

2022년 5월 14일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국내 백인우월주의 테러 행위로 고용량 매거진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으로 인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미래에 이와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라 국내 극단주의자들의 공격과 음모의 횡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백인 우월주의자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테러 공격과 음모가 38건"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내용은 뉴욕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고조되는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력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뉴욕주 경찰은 선서한 구성원들이 민사소송법 및 규칙 63-A조에 따라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을 신청하도록 교육 및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선서한 모든 뉴욕주 경찰의 구성원은 신청서 즉, 피신청인이 정신위생법 9.39조 (a)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의 발행을 정당화하는 사실과 상황을 명시한 선서문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규칙 제63조 A항의거에 따라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대법원에 이러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